

2019 년 1 학기 One Asia 재단 국제세미나

「인문교양:아시아 공동체:동아시아학의 구축과 변용」시리즈 강좌(7)

주제 : 급변하는 아태 경제 협력의 미래 방향

제 7 회 One Asia 재단 국제 강좌에서는 일본국립대학 오타루 상과대학 (小樽商科大学) 고바야시 토모요시(小林友彦) 교수가 강의를 해 주셨다. 고바야시 토모요시 교수는 국제법과 국제경제법 관련 전문가이시며 일본경제산업성 통상정책국 산하 통상기구부 참서관(参事官)을 보좌하기도 하였다. 그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선 '국제경제법' 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국가무역정책이 개인의 국제경제 활동을 통해서 국제규범의 규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였다. 고바야시 교수는 현재 무역 활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토론해야 할 의제 중 미중무역전쟁, 라운드 담판이란, 한일무역갈등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국제 무역의 흐름을 실무적인 측면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곱 명의 학생들에게 구매자, 판매자, 세관 직원, 통관사, 운수업체, 보험업체, 창고업체들의 역할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물품이 수출입되어 판매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매자가 수출하여 외국의 구매자 간에 거래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는지를 설명하였다. 강의를 듣던 교수들과 학생들이 각 단계에서 관계자들 간의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알게 되었으며 무역 관세와 국내 규범의 기능을 한층 더 이해하게 되었다.

고바야시 교수는 주사위 놀이를 이용하여 네 그룹의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누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5 회에 걸쳐 주사위 놀이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각 그룹 학생들은 주사위의 숫자가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로 쓰여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각 조의 학생들은 그 위에 적혀진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전제 하에서 주사위를 던져 어떻게 자신이 획득한 점수를 알릴 수 있는지를 토론해야만 한다. 이것은 전략의 문제이며 게임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담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바야시 교수는 피라미드 형태를 이용하여 무역의 관건이 되는 국제 법규 구조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모두에게 국제무역법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일반인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가산업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국제경제법의 기본 사유 방식을 소개하면서 무역은 '개인'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무역활동을 간섭하였으나 국가는 과도한 간섭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국가의 간섭이 줄어드는 것이 '자유'와 '차별 금지'를 보다 더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 금지'와 '자유화'는 WTO 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차별 금지' 원칙은 동일한 물건은 반드시 동일하게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과 '내국민 대우(NT, National Treatment)'라는 두 가지 규정이 있다. '최혜국 대우(MFN)'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입 단계에서 국내외 제품 간에는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 '내국민 대우(NT)'는 수출입 후에 국내에서 국산품과 수입산에 대한 차별 대우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자유화'의 원칙은 국가의 무역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원칙을 말하며 수량 제한 금지와 기존에 승인된 기준 관세보다 더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바야시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개인의 이익 추구 욕구는 무역을 이끌어 내는 원동력이다.
2. 국가는 무역 활동으로 규범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3. 국제무역법은 국가가 과도한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4. WTO 는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한다.
5. 차별 금지와 자유화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6. FTA 는 고도의 무역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WTO 가 인정하는 차별 대우라고 할 수 있다.
7. 규칙을 제정할 때와 규칙을 제정한 후에도 지속적인 '담판'이 필요하다.

웹사이트: <https://oneasia.pccu.edu.tw/faculty.php>)

번역: 장민자(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호(한국어문학과 부교수)